

# PACKAGING NEWS



## 협회 · 회원사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  
동서식품 경남 창원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기동  
동원산업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796억 원 기록...전년 대비 41% 증가  
서일 '한마음 워크숍' 개최  
SKC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KC 2분기 연속 분기 매출 1조 원 돌파  
오리온 2022년 상반기 연결기준 사상 최대 매출액 · 영업이익 달성  
코오롱인더스트리 대외 약조건 속 견조한 실적 달성  
코오롱인더스트리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세창화학(주) 연포장용 플렉소 잉크 개발에 박차

## 업계

(주)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LG화학-유한킴벌리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 위한 소재 혁신 MOU' 체결  
SK지오센트릭 사빅과 고성능성 화학제품 생산에 2천억원 공동투자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

##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

환경, 워라벨 등 교류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위원장 김창순)가 지난 8월 11일 모임을 갖고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속 회원사 20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모임에서는 친환경 소재 동향, 플렉소 인쇄 동향, 수성잉크 동향 등 연포장업계의 관심사항을 경험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또한 워라벨을 시행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유익한 자리가 되어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적극 참석하여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창순 위원장은 “연포장분과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면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연포장분과위원회는 앞으로 회의 이외에도 야외 행사를 추진하여 협회 내 최고의 분과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위원장 김창순)가 지난 8월 11일 모임을 갖고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주]대일산업**  
1980년 9월 8일 창립 42주년

**[주]대진화학**  
2014년 9월 2일 창립 8주년

**[주]아이앤티산업**  
1980년 9월 25일 창립 42주년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서식품**

**경남 창원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가동**

생산공정 자동화 시스템의 고도화 통해 제품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 기대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자사 커피 제조공장인 경상남도 창원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본격 가동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동서식품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은 2020년 인천 부평공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동서식품이 자사 커피 제조공장인 경상남도 창원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소비자들의 기호가 세분화됨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기존 공정의 자동화 수준을 높여 제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동서식품은 2020년 5월, 커피 제품을 생산하는 부평, 창원공장에 418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부평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먼저 가동하면서 제조 단계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며 공정을 개선하고 표준화해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창원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는 부평공장의 앞선 사례를 참고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한 각 공정 데이터와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한 단계 발전시킨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품의 생산 계획, 설비의 상태, 재고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토대로 공정 진행의 판단을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하도록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동서식품은 지난 2015년부터 부평, 창원공장과 동서식품 연구소의 인력을 주축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미라콤아이엔씨 등 전문 솔루션 기업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면서 체계성과 완성도를 보다 높였다.

동서식품은 이와 같은 제조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제품 생산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화 시스템과 방대한 빅데이터를 연동해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해 제품 생산 시기부터 수량까지 최적화할 수 있다.

동서식품 창원공장 원동한 공장장은 “앞으로 첨단 기술의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고품질의 커피 제품을 적시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원산업

###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796억 원 기록...전년 대비 41% 증가

매출액 1조 6723억 원, 당기순이익 1335억 원 기록...각각 24%, 51% 성장

동원산업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 1796억 원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41% 올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1335억 원으로 51.2% 상승했으며, 매출액은 24.2% 성장한 1조 6723억 원을 기록했다.

동원산업은 올해 들어 참치 등 수산물을 어획하는 수산 사업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별도 재무제표상의 동원산업 손익 개선이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 향상을 이끌었고 핵심 자회사인 미국 스타키스트는 이익이 소폭 감소했으나 매출 규모는 커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이 예상돼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동안 중간 지배회사 역할을 해왔던 동원산업은 올해 하반기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형

지주회사'로 거듭날 예정이다. 동원그룹은 동원산업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열사 간의 사업적 시너지를 발휘시킨다는 전략이다.

동원산업은 8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과 함께 유통주식 수 확대 목적의 주식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의결한다. 동원산업의 주식 액면가는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되며, 의안이 통과된다면 11월 3일부터 신주권이 상장·거래될 예정이다.

## (주)서일

### ‘한마음 워크숍’ 개최

제조기업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고기능 필름 전문 제조업체인 (주)서일(대표이사 이영철)이 지난 8월 1일부터 2일까지 ‘한마음 워크숍’을 가졌다.

한마음 워크숍은 ‘새로운 미래로 도약!’을 모토로 2023년을 준비하는 다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주)서일 전 임직원 60여 명 대상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제조



▲ 고기능 필름 전문 제조업체인 (주)서일(대표이사 이영철)이 지난 8월 1일부터 2일까지 ‘한마음 워크숍’을 가졌다.



▲ 한마음 워크숍은 '새로운 미래로 도약!'을 모토로 2023년을 준비하는 다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조기업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 기간 중에는 회사 비전과 부서별 목표에 대한 공감의 시간과 직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미니 체육 대회 및 만찬 자리도 마련되어 임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주)서일은 국내 최초로 Retort 투명증착 필름을 개발에 성공하여 지난해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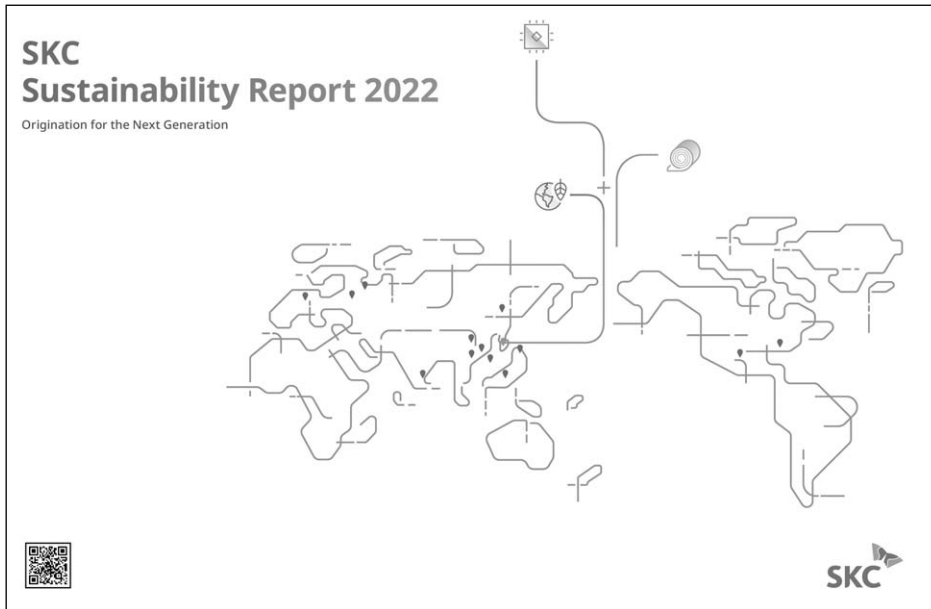
또한 이번 비전 공유를 통해 AlOx 필름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재 개발과 Mono material을 기반으로 Barrier 성능을 갖는 고기능성 단일필름을 개발하여 2023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SKC

###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2% 감축 목표 제시

SKC(대표이사 박원철)가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지속가능하고 더욱 가치 있는 성장을 향한 SKC의 의지를 천명했다.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보고서에는 그동안의 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변화 노력을 담았다. 동시에 비재무 정보 공시 건수를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온라인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을 강조했다.



▲ SKC가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지속가능하고 더욱 가치 있는 성장을 향한 SKC의 의지를 천명했다.

SKC는 7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SKC는 내년 의무 적용을 앞둔 ‘이중 중대성 평가’를 올해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SKC의 ESG 이슈를 도출하는 중대성 평가에 재무적 영향도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SKC는 파

이낸셜그룹을 대상으로 SKC의 ESG 이슈를 파악하고 환경 및 사회 영향도 결과와 종합해 올해 보고서를 구성했다.

우선 SKC는 파이낸셜스토리 섹션에서 2016년 이후 딥체인지를 추진하며 거둔 성과와 3대 성장축으로 삼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친환경 소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소개하고 거버넌스 혁신과 글로벌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선 2040 온실가스 넷 제로 중간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42%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에 그치지 않고 SKC는 원료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공급망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SKC는 올해 보고서를 지난해보다 더욱 충실하게 준비했다. 공시 데이터 수를 전년도 130여 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290여 건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창출한 사회적 가치 측정값과 산정 사례도 소개했다. SKC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0.1% 증가한 5,366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SKC의 ESG 경영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시 업데이트 방식을 도입한다. SKC의 ESG 정책을 종합한 ESG 정책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ESG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면 이해관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SKC 관계자는 “SKC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아이덴티티를 과감히 재정립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진심이 담긴 ESG 경영을 실천해 더욱 가치 있는 성장을 거둬나갈 것을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SKC

## 2분기 연속 분기 매출 1조 원 돌파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 전년 대비 10.5% 증가

SKC(대표이사 박원철)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30.2% 늘어난 1조 76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분기에 이어 1조 원 대 매출을 연속으로 달성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094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10.5% 증가한 2,424억 원을 기록했다. 미래 주력 사업인 이차전지용 동박사업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7.4% 증가하며 성장성을 입증했다.

SKC는 8월 8일 종로구 SKC 본사에서 이용선 SKC 인터스트리소재사업부문장, 원기돈 SK피아이씨글로벌 대표, 이재홍 SK넥실리스 대표, 임의준 SK피유코어 대표, 김종우 SKC솔믹스 대표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SKC 실적발표 현장은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2분기 SKC는 모든 사업부문에서 고무 매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매출 1,995억 원, 영업이익 296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6.6%, 영업이익은 57.4%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 나갔다. 전기차 제조사들의 신차 출시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3분기에는 풀가동에 따른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

SK피아이씨글로벌을 중심으로 한 화학사업은 매출 4,123억 원, 영업이익 695억 원을 기록했다. 프로펠렌옥사이드(PO) 제품 수요가 전 분기 대비 줄었지만, 고부가 제품 프로펠렌글리콜(PG) 및 폴리우레탄 원료인 폴리올 판매가 늘면서 실적을 방어했다. 3분기에는 지금까지 구축해 온 글로벌 물류 포스트를 기반으로 대형 고객사 PG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KC솔믹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소재사업은 매출 1,356억 원, 영업이익 63억 원을 기록했다. 원가 상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제품의 판매 호조로 전 분기대비 영업이익이 늘었다. CMP패드의 신규 고객 평가 및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SKC솔믹스는 3분기에 반도체 노광공정 핵심소재인 블랭크마스크의 고객사 인증도 완료하고 상업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터스트리소재사업부문은 매출 3,211억 원, 영업이익 150억 원을 기록했다. 친환경 및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변동성 심화에 대응했다. 전망산업 부진 및 원가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3분기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소재, 친환경 에코라벨 등 고부가 제품 판매를 확대하며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SKC는 ESG 경영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 글로벌 ESG 평가지표인 MSCI ESG 평가등급이 전년 'BB'에서 올해 'BBB'로 한 단계 상향됐다.

또한 7월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2040 온실가스 넷 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가 SKC의 ESG 경영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내 방침과 규정을 정비하고





종합한 온라인 ESG 정책북을 제작하는 등 투명한 ESG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거버넌스도 한층 강화했다. 올해 3월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공고히 한 SKC는 2분기에 선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인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및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SKC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1, 2분기 연속으로 분기 1조 원대 매출을 달성하고,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수익성을 제고하는 등 재무적 성과 개선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ESG 평가등급 향상, 온실가스 넷 제로 중간목표 공개 등 ESG 경영 성과도 확대했다”며, “하반기에도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을 향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오리온

### 2022년 상반기 연결기준 사상 최대 매출액 · 영업이익 달성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6.0%, 영업이익 26.3% 성장

오리온그룹은 사업회사 오리온이 2022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 2805억 원, 영업이익 1983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8월 16일 밝혔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비우호적인 경영환경 속에서도 한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전 법인이 제품력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펼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6.0% 증가했다. 원재료 공급선 확대 및 글로벌 통합 구매를 통한 원가관리와 공정 효율화 작업을 통해 제조원가를 상승폭을 최소화하며 영업이익은 26.3% 성장했다.

한국 법인은 매출액이 13.7% 성장한 4479억 원, 영업이익은 5.3% 성장한 696억 원을 달성했다. 적극적인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이류와 비스킷류의 매출이 크게 늘며 성장을 견인했다.

간편대용식 카테고리의 성장과 건강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마켓오네이처 및 닥터유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15% 성장하며 힘을 보탤다. 젤리 카테고리 역시 ‘마이구미 알맹이’ 등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 매출이 34% 성장했다. ‘닥터유 제주용암수’ 등 음료사업도 판매처를 적극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주요 원부재료 및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제조원가율이 4%p 이상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사 차원의 원가관리 노력을 지속하며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다.

하반기에는 파이, 스낵, 비스킷 등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그래놀라 신제품을 통해 간편대용식 카테고리의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닥터유 제주용암수’와 ‘닥터유 면역수’도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해외 수출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



오리온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신제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펼치고, 비용 효율화에 역량을 집중하며 전 법인이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호실적을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도 차별화된 신제품 출시와 신규 카테고리 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코오롱인더스트리

### 대외 악조건 속 견조한 실적 달성

매출 1조 3,883억, 영업이익 885억 (IFRS 연결 기준)

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이사 사장 장희구)는 8월 4일 영업(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2022년 2분기 매출액 1조 3,883억 원, 영업이익 88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IFRS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제조부문을에서 타이어코드, 아라미드 등 산업자재 주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패션부문에서는 아웃도어/골프 관련 브랜드의 꾸준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역기저 효과로 인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했지만, 국제유가와 원재료비 급등 및 중국 내 도시 봉쇄 조치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제품가격 인상과 패션부문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자재부문은 타이어코드와 아라미드가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 타이어코드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지난해 교체용 타이어의 높은 수요와 올해 신차용 타이어 수요도 함께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올해 9월 베트남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추가 매출 확대와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라미드는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수요 증가와 글로벌 5G 광케이블 보강재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로 호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착공한 아라미드 더블업(Double-Up) 증설 설비도 내년에 완공되면 7,500톤에서 15,000톤으로 생산량이 증가해 매출 및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부문은 원료가 상승에 발맞춰 제품가격을 인상해 석유수지와 페놀수지 제품군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필름/전자재료부문은 높은 수출 운임 비용과 원료가의 영향 등으로 실적이 감소했다.

패션부문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며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코오롱스포츠는 상품 경쟁력 강화와 MZ세대 고객 증가로 매출과 이익률이 모두 개선됐다. 골프 브랜드는 신규 골프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고정관념을 탈피한 디자인과 상품 개발로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틈새시장을 겨냥한 신규 브랜드(더카트골프, 볼디스트 등)도 시장에 조기 안착하는 등 매출 신장에 기여했다. 하반기 역시 패션 성수기로 접어들며 안정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2분기 들어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과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중국의 도시 봉쇄 정책 등 예상치 못한 대외 리스크가 발생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타이어코드와 아라미드 등 산업자재 부문의 좋은 실적과 패션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비교적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라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3분기에도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코오롱인더스트리

###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40 Net Zero 달성” 향한 ESG 경영 박차

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이사 사장 장희구)는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주요 성과, 향후 목표 등이 담긴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8월 18일 밝혔다. 세부 내용은 별도 책자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40 Net Zero 달성(국내사업장 기준) △친환경 제품/소재 개발 및 친환경 사업 확대 △환경/안전사고 무재해 사업장 구축 △비즈니스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상생 경영 실천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윤리경영 내재화 등 코오롱인더스트리의 ESG 경영 5대 핵심 전략과 함께 16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공정 효율 향상 활동 및 설비 운전 최적화를 통해 지난해 약 4,400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했다. 올해도 사업장과 제품 특성에 맞춰 친환경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오는 2024년까지 전 사업장 환경통합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수소 생산 및 저장 관련 기술 연구와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개발 등 미래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CSO(Corporate Strategy Officer, 전사 전략 부문) 조직을 신설했고, 탈탄소경영을 적극 추진하고자 KCN TF(Kolon Carbon Neutralization TF, 탄소중립 TF)도 출범시켰다.

친환경 접착제용 소재로 개발된 반응형 석유수지(HRR), 바이오매스(Biomass)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등 그린(Green) 소재 제품 개발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에 대해 담당 임직원들의 인터뷰 형식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제조부문의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및 수소연료전지 사업과 패션부문의 업사이클 브랜드 ‘레코드(RE:CODE)’ 등이 잘 소개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주주 및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전 사업과정에서 ESG 경영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창화학(주)**

**연포장용 수성 플렉소 잉크 개발에 박차**

인쇄업계와 협업통해 품질 안정화

패키지용 잉크의 개발은 법 규제 및 환경 대응에 발맞추어 변화해 왔다.

2000년대 초반 연포장시장의 과열 경쟁으로 낮은 가격 및 납기 등에 대한 문제들이 산재 되어 있었으나 전반적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추세였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환경이슈가 대두 되면서 연포장의 지각 변동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구조와 업태가 뒤엉키고, 탄소 중립, 탄소 발자국 등 인쇄업계에도 환경적인 바람이 불어왔고, 이에 현장의 변화와 인식 또한 변화하기 시작한다.

ESG 경영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2050 탄소중립 실현 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대기업 들은 하나둘 환경을 배려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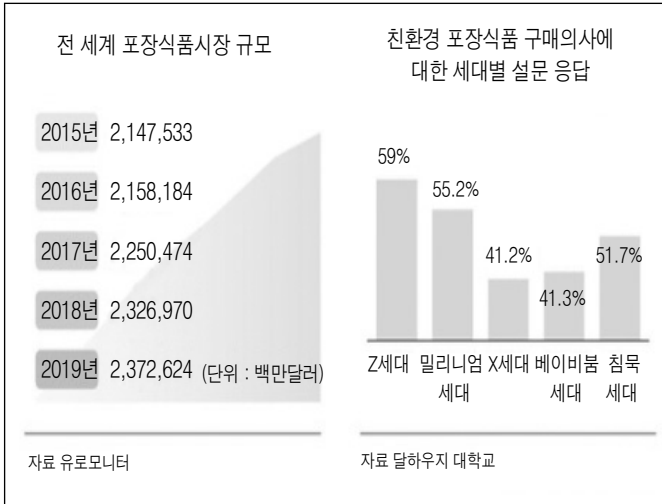
스낵류, 라면 등 2급지 적용 제품들은 플렉소 방식의 적용으로 연포장시장의 용제형 그라비아를 대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사업활동에서 에너지 배출 극소화는 에너지 절약이다. 혁신적인 에너지 절약 설비의 도입, 설비의 진화(에너지메니지먼트 EMS) 재생에너지 이용, 태양광 적용, CO<sub>2</sub> 배출 저감 등을 들 수 있다.

대기업들의 환경적 이슈는 CO<sub>2</sub>저감과 포장재의 친환경이다.



▲ 세창화학 그라비아 플렉소용 수성잉크 브랜드 Wink와 Edina, 친환경잉크 시장선도, 신공장 전경.



▲ 전 세계 포장식품시장 규모, 친환경 포장식품 구매의사에 대한 세대별 설문 응답

인쇄설비 변경과 잉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이슈가 대두 되면서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수성 잉크나 알코올 타입의 잉크로 대체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성잉크나 알코올 타입의 잉크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플렉소 타입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라비아에 적용하려면 건조열량을 늘리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수성 플렉소를 활용한 식품포장재가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수년에 지나지 않는다.



▲ 제품들은 플렉소 방식의 적용으로 연포장시장의 용제형 그라비아를 대체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일본과 닮은 연포장 인쇄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내는 그라비아 주류이나 6~7% 를 차지하는 일본 연포장의 플렉소 시장보다 그 범위가 넓을 것으로 보여진다.

연포장 수성 플렉소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잉크의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제판, 인쇄기를 포함한 주변설비, 재료관련 수준이 모두 향상 되어야하며 함께 맞춰 나가야만 한다.

세창화학은 수성잉크로 지류에서 시작되어 위생용품의 기저귀 생리대 등 플렉소 인쇄용 잉크가 45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바로 연포장용 플렉소 잉크 개발이다.

일반적으로 수성플렉소 잉크는 아크릴 에멀전을 바인더로 사용하고 있다. 표쇄 인쇄가 많은 유럽에서도 널리 적용하는 제품군들이다.

국내에서는 유럽과는 다르게 VOCs(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 대상에 37번 Styrene (cas 100-42-5) 포함되어있다. 이를 배제 하고 새로운 바인더의 적용과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쇄인쇄에 적합하며 후가공에 문제가 없는 플렉소 잉크 개발을 지속적으로 인쇄 업체들과의 협업으로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8월 2일부터 과대포장 검사 진행



▲ 환경부가 (주)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8월 2일 (주)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 대표이사 이한영)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밝혔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은 포장분야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련된 시험 및 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지난 5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터 '공인검사기관' 인정을 취득한 바 있다.

이번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제3호에 따른 환경부 지정 검사 전문기관이 됨에 따라 KST 1303 포장공간비율 및 환경부령 제933호의 제품포장규칙의 검사항목에 대한 KOLAS 인정을 취득한 국내 유일한 검사기관이 됐다.

이한영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대표이사는 "그동안 검사기관 부족과 검사물량 급증으로 인한 검사시간 지연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KIEP가 새롭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포장 관련 기업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LG화학-유한킴벌리

##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 위한 소재 혁신 MOU' 체결

원료 생산부터 고객 경험 반영하는 친환경 신소재 연구 개발 시스템 구축

LG화학은 유한킴벌리 본사에서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유한킴벌리 진재승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

한 제품 개발을 위한 소재 혁신 업무 협약(MOU), 그린 액션 얼라이언스(Green Action Alliance)'를 체결했다고 8월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친환경 소재 적용 혁신 제품 개발 및 시장 확대 ▲신소재 적용 제품에 대한 사용자 경험 공유 및 반응을 통한 고객 맞춤형 소재 및 제품 개발 확대 ▲친환경 소재(바이오·생분해·재생 원료가 일부 혹은 전체 포함된 소재)의 안정적 공급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양사는 친환경 수요가 높은 위생용품에 고객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해 친환경 소재와 신제품 개발을 가속할 방침이다. 또 원료 개발 단계부터 고객 목소리를 반영해 자연 유래 흡수체, 생분해 소재, 재생 포장재 등 사용자 관점에서 친환경 제품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LG화학은 세계 최초로 ISCC PLUS 친환경 국제 인증을 획득한 Bio-balanced SAP(고흡수성 수지)을 유한킴벌리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한킴벌리는 기저귀 제품(하이스 네이처메이드 오가닉)을 출시하는 등 성공적으로 유한킴벌리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양사는 유아 및 성인용 제품에 친환경 소재를 확대 적용하며 프리미엄 친환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Bio-balanced SAP(Super Absorbent Polymer)는 식물성 바이오 원료가 적용된 고흡수성 수지로, 자기 무게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 물을 흡수하며 주로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사용된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LG화학의 지속 가능 소재 기술력과 유한킴벌리의 제품력이 고객을 위한 자원 순환 경제 구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폭적인 투자와 기술 지원으로 양사의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진재승 대표이사는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실제 소비자 사용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혁신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차원을 넘어선 산업계 전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LG화학과의 협력은 환경성과 제품력을 높여 다수의 소비자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SK지오센트릭

### 사빅과 고기능성 화학제품 생산에 2천억원 공동투자

울산 넥슬렌 공장 대폭 신·증설해 글로벌 친환경수요 선점

SK지오센트릭이 증가하는 고기능성 화학제품 시장수요 선점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글로벌 화학기업 사빅(SABIC)과 공동투자에 나선다. SK지오센트릭 기술력과 사빅의 원료 경쟁력이 만나 고기능 화학제품 시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전망이다.

SK지오센트릭은 사빅과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법인 SSNC(SABIC SK Nexlene Company, 이하 SSNC)가 울산시와 함께 8월 23일 울산광역시청에서 고부가 화학제품 공장 신·증설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SSNC는 국내 자회사인 한국넥슬렌을 통해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사평로 1 일원 1,322㎡ 부지에 오는 2024년 7월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 고기능성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생산공장을 신·증설한다. SSNC는 SK지오센트릭과 사빅이 지난 2015년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한국넥슬렌은 SSNC의 100% 자회사다. SSNC는 한국넥슬렌에 총 6,051억원을 투자해 6만 8,100㎡ 규모의 공장을 설립, 연간 21만톤의 넥슬렌(Nexlene)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신·증설로 연간 생산량은 43% 가량 늘어난 30만톤에 이르게 된다. 생산물량의 90% 이상은 수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사미 무함마드 알-오사이미(Sami Mohammed Al-Osaimi) SSNC 회장, 이태근 SSNC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SSNC와 울산시는 고기능 화학제품 넥슬렌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넥슬렌은 지난 2010년 SK지오센트릭이 에틸렌을 원료로 개발한 고기능성 제품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화학 제품이라는 뜻인 넥슬렌엔 국내 최초로 촉매·공정·제품 전 과정 독자기술이 적용됐다. 넥슬렌은 일반 폴리에틸렌 제품 대비 위생성, 투명성, 강도 등이 뛰어나고 우수한 밀도범위를 가져 다양한 제품으로의 2차 가공이 용이하다. 이번 투자는 최근 완성차 및 태양광 등 고부가 친환경 소재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국넥슬렌은 넥슬렌을 이용한 고기능성 제품인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폴리올레핀 플라스틱머(POP),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을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다우케미칼 등 글로벌 석유화학업체들이 독점해 왔던 분야에서 한국넥슬렌이 우수한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 독점구도를 깨트리며 약진하고 있다.

이번에 신·증설되는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는 탄력성과 내충격성이 매우 우수해 플라스틱 물성을 강화하는 자동차 경량화 부품에 주로 쓰인다. 타 제품 대비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어 태양광 발전 필름제작용으로도 사용된다. 또한 폴리올레핀 플라스틱머(POP)는 우수한 밀봉성으로 위생성이 높아 의료용과 식품 포장재 등에 사용된다. 외부물질과 차단성을 높여 품질 유지 기간을 늘려주는 특성이 있다.



▲ SK지오센트릭이 사빅과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법인 SSNC가 울산시와 8월 23일 고부가 화학제품 공장 신·증설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종일 한국넥슬렌 대표는 “자체 개발 넥슬렌 제품을 이용한 자동차 경량화 소재, 태양광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 글로벌 공급 선도를 위한 증설 투자가 시작되어 기쁘다”며, “넥슬렌의 우수한 제품력은 물론 친환경 효과에 이르는 장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